

홈 > 뉴스 > 기획 > 신탐라순력도

"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마을 변화 일궈내"

김철용 월평마을회장 인터뷰

데스크승인 2014.06.08 좌동철 기자 | roots@jejunews.com



"주민들이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열망하고 있죠. 그래서 이주민들이 정착하고 싶은 살기 좋은 마을로 거듭나고 있습니다."

김철용 월평마을회장(52)은 "제주특별자치도와 정부가 선정한 관광민박 마을, 범죄없는 마을, 정보화마을, 월평화훼마을 등 작은 농촌마을이 다양한 사업에서 영예를 안는 등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마을 발전을 선도해가고 있다"고 자랑했다.

그는 "주민들이 재배한 백합과 하우스감귤은 특산물 홍보관인 '돌벙디'에서 직접 판매를 하고, 전자상거래를 통해 전국에 유통하고 있다"며 "주민들이 한 공동체라는 인식을 갖고 서로 돕고 나누면서 마을이 계속 발전해 나가고 있다"고 말했다.

김 회장은 “특산물을 재배하고 판매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백합 꽃 꺾기, 감귤 따기, 올레길과 연계한 월평이야기 탐방길 조성으로 마을에 대한 홍보가 저절로 되면서 주민 소득 향상은 물론 관광객 유치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”고 밝혔다.

© 제주신보(<http://www.jejunews.com>)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| 저작권문의